2014년 제25호
2014년 7월 9일(수)
한농연중앙연합회
회원지원센터

한농연 조직 활성화 소식지

전화 : (070)7165-0017
전송 : (02)3401-6549
http://kaff.or.kr
kaff0001@gmail.com

한농연 지역연합회 소식

○ **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, 농축협 임원교육 실시**

-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(회장 김용우)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사조콘도에서 한농연 임원 및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'제10기 협동조합 리더양성 중급교육과정'를 개최했음
- 이번 리더양성 교육에서는 '결산 재무재표 및 예산수립의 이해'와 '판매농협 건설을 위한 올바른 조합경영방향', '농협정관의 구성과 적용', '지역농협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발전방향' 등에 대한 교육과정이 개설됐음

○ **정선군연합회, KGB 택배와 농산물 택배 업무협약 체결**

- 정선군연합회(회장 전용표)는 KGB 택배와의 농산물 택배 사업과 관련한 MOU(양해각서)를 6월 24일 체결하였음
- 최근 우체국 택배의 요금 인상을 포함하여 국내 주요 택배사의 운송 요금이 급등하는 추세였는데, 이에 대한 중앙연합회 및 지역연합회 차원의 대응 활동이 요구되는 시점이었음
- 이에 정선군연합회는 한농연 회원증을 소지한 회원들이 KGB 택배를 이용할 경우 12~20%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정선군 관내에서만 연간 4천만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음
- 중앙연합회도 KGB 택배와의 업무협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최종 협상을 전개하고 있으며, 7월 8일 이사회에서 심의·의결한 뒤 회원들에게 보다 싼 가격으로 농산물 택배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중임

○ **정선군농단협, 관내 4개 지역농협 통합을 추진**

- 아울러 정선군연합회(회장 전용표)가 주도하고 있는 정선군농단협은, 관내 정선·예미·임계·여량 등 4개 지역농협을 하나의 광역단위 농협으로 통합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통합 작업을 추진할 방침임. 이를 위해 7월까지 농협 합병을 위한 토론회와 교육을 진행하고 합병유무를 묻는 찬반투표도 진행할 계획임
- 정선군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합병을 요구하는 이유는 농산물 판매·유통의 어려움 때문임. 농협이 경제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하는 데 경제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것임. 아울러 농협 통합 후에는 비상임 조합장 제도로 전환하여 판매·유통을 전담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
-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은 4개 농협의 합병에 대한 컨설팅을 농협중앙회에 요청한 상태인데, 이에 농협 관계자들은 "조합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다"고 하면서도 합병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임

2014년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 사업 신청알림

○ **모국방문을 희망하시는 다문화가정은 7월 25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**

- 한농연중앙연합회는 한국마사회와 함께 2014년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.
- 지원 대상은 각 시도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한농연 회원 중 국내에 거주하며 농업에 애정을 갖고 영농활동을 3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입니다.
- 이중 총 10가족을 선정하여(3~4인 가족) 모국을 방문할 수 있는 왕복항공권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
- 지원범위 : 다문화가정 1가족에게 왕복항공권지원(부부포함 최대 4인)
- 방문시기: 2014년 8월 ~ 2015년 2월(희망기간 이용)
- 지원대상: 이주여성농업인이 한국에 최초입국한 이후 국적취득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한 가정,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고 부부동반 방문이 가능한 가정
- 신청서류: 모국방문 지원 참여 신청서 및 모국방문 계획서 1부
- 구비서류: 주민등록등본1부, 신청자 및 배우자 여권 복사본 1부, 부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부
- 제출기한: 7월 25일까지
- 담당자: 신현철 대리(070-7165-0012)

쌀 관세화 유예종료 대응 토론회 개최

○ **한농연, 한국농축산연합회 주최 쌀 관세화 토론회 개최**

- 한농연중앙연합회와 한국농축산연합회(회장 김준봉)가 주최하고, 한국농어민신문 부설 한국농어민경제연구소가 주관하는 "쌀 관세화 유예종료 대응 토론회"가 오는 7월 9일(수) 14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임
- 현재 우리나라 쌀은 예외적으로 특별 취급을 받아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하고, 그 대가로 의무수입물량(MMA)을 증량해 왔음. 하지만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, 올해 9월 말까지 WTO에 관세화 여부를 통보해야 함
- 일부에서는 현상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, 의무면제 협상을 통한 관세화 재유예는 협상시 WTO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해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실정임
- 이에 한농연은 쌀 관세화가 불가피하다 보고 국내 쌀산업을 보호하고자 관세화 협상 이전에 '쌀산업 종합발전 대책'을 마련하고, 고율관세 설정을 통해 수입쌀의 국내 시장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음